

창해에탄올, 보해양조 최대주주로

보해양조는 임건우 외 10인에서 창해에탄올 외 10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9월19일 공시했다.
보해양조는 저축은행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후 최근 창해에탄올에 인수됐다.

<화학저널 2011/09/19>